■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 날 제주의 아이러니

식당·술집 '적막'… 탑동광장 '북적'

밤 11시 이후 음주·취식위해 야외로 사람 몰려
5인 이상 모임 비일비재… 방역 무법지대 전락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 '노상' 장소로 손꼽히는 탑동광장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5인 이상 집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도 적잖이 발견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자정을 넘어가는 늦은 시간인데도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 인근에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술집,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로 제한되면서 이 곳으로 모여든 것이다.

이들은 계단이나 주변 산책로에 자리잡고 취식·음주 등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일행들과 다닥다닥 붙어앉아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 종종 목격됐고 턱스크를 하거나 아예 벗은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들 뒤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의 경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 취지를 무색케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무방비한 모습이 노출되자 탑동광장을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탑동광장 인근에서 살고 있는 주민 강모(44)씨는 "거리두기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5인 모임 금지 조치도 지켜지지 않는데, 사실상 이 곳은 무법지대"라며 "거리두기 격상을 해도 의미가 없다. 탑동광장 취식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 상권에선 사람이 없어 간판 불이 꺼져 있는 등 북적이던 탑동광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며 적막감이 흘렀다.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문을 닫지 못한 가게는 마감 준비에 한창이었다. 거리에는 간간이 배달오토바이들만 지나다녔다.

올해 초 거리두기 2단계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재차 거리두기 연장 발표로 인해 매출이 또 줄어들까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다.

시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53)씨는 "거리두기 완화로 매출이 소폭 올랐지만 이마저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매출이 또 꺾일까 걱정된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유지되며 이후 확산세 추이에 따라 완화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강민성기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31일 제주시청 일대 상가(왼쪽)에 적막감이 흐르는 반면 제주시 탑동광장(오른쪽)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강민성기자

순백의 메밀꽃 1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메밀밭에 순백의 메밀꽃이 만개해 초여름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 시대 외국인 범죄도 줄었다

지난해 629건 발생… 전년보다 14%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귀국 행렬과 무사증 중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29건으로 전년인 2019년(732건)보다 14%(103건) 줄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은 3건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강도와 강간(추행)은 각각 0건과 9건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절도도 72건으로 전년대비 36.3% 내려갔다.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줄어든 이유는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같은해 2월 4일에는 비자 없이 입도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까지 중단됐다.

외국인 범죄가 줄면서 제주경찰청도 '외사' 관련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올해 초 단행했다. 외사과 산하에 있던 기존 2010년 만들어진 국제범죄수사대를 '국제범죄수사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2019년 1만4732명에 달하던 제주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1만1551명으로 줄었다. 송은범기자

7명중 1명꼴 변이 바이러스 감염

도 "코로나19 감염자 중 45명에게서 변이 확인"
5월 한달 328명 확진… 올 전체 감염자의 절반

5월 4차 대유행을 불러일으킨 대학 운동부 관련 확진자 중 일부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같은 기간 타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된 확진자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현재까지 총 45건의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도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을 통해 30명의 확진자에 대한 결과가 전달된 이후, 1일 15명의 확진자에게서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들 중 집단감염인 '제주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 3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판정됐다. 앞서 대학 운동부 관련 확진자 가운데 20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이외 제주 확진자 접촉자, 입도객, 유흥종사자 및 이용자 등 개별 감염 사례로 분류된 22명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45명의 확진자 가운데 43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1명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제주지역에선 ▷대학 운동부 관련 66명 ▷제주시 직장 및 피로연 관련 24명 ▷제주시 일가족 관련 14명 ▷제주시 음식점 관련 12명 ▷제주시 목욕탕 관련 12명 ▷제주시 지인 모임 9명 ▷서귀포시 직장 관련 7명 ▷서귀포시 가족 제사 5명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여파로 가정의 달인 5월 도내에선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확진자가 발생하며 총 3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 87명과 비교해 241명이 더 나온 것으로, 전달대비 3.8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제주에서는 62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이중 53%가 5월 한 달새 발생했다.

한편 1일 제주지역에선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추가 확진자 중 4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4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제주 백신 접종률은 인구대비 10%를 넘어섰다. 강다혜기자

"운전자 등 처벌을…"

제주대 입구 4중추돌사고 희생자 유족 청와대 청원

지난 4월 6일 3명의 사망자와 59명의 중경상자를 낸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4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의 호소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된 4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4.5t 트럭 운전자 및 관계자들의 처벌을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게시글이 지난달 31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3시25분 기준 1550명의 동의를 받았다.

희생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아들을 포함한 3명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한 여학생은 혼수상태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31세 청년의 꿈과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일상은 한 순간에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이번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화물차 관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안전이 일부 무책임한 화물운송 사업자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럭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8일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